

광주 아파트 통학차량 출입 입주민 갈등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단지 내 출입을 놓고 입주민 사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야 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입주민은 "통학차량 출입에 따른 보행자 사고·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며 맞서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광산구청은 21일 아파트를 방문,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모 아파트는 지난해 말 입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외부차량의 무단별한 출입으로 입주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후 등 대표로 구성된 입주민 대표회의는 '차량출입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주차시설관리 규정을 논의·의결한다'며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주민에게 알렸다.

또 지난 8일 열린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원 통학차량의 출입금지'를 포함한 주차시설관리규정이 의결, 제정됐다.

의결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내용이 공용계시판 등에 공고됐다.

이후 지난 10일부터 새 주차시설 관리규정이 시행돼 통학차량의 단지 내 출입이 전면통제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가 단지 내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정문·후문 앞 일반도로변으로 바뀌었다.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은 통행량이 많은 단지 밖 도로변에서 승·하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걱정하고 있다.

직장인 A(45·여)씨는 "왕복 5차선 도로 주변에 아이들이 서 있는 자체가 위험하다"며 "하교할 때에는 6살 난 딸이 홀로 집까지 걸어가야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4살 난 아들을 키우는 B(31·여)씨는 "인·차도 구분을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갈 때 불안하다"며 "교통상황에 따라 승하차 위치도 수시로 바뀌어 무섭다"고 토로했다.

유치원생 손녀를 둔 C(62·여)씨는 "다수의 편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방관하고 있는 일부 입주민 행태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아들은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 차량까지 출입을 막는다',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의결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 '택배차량은 출입

입주민 대표 의결로 통학차량 출입통제 어린이 사고 위험 vs 입주민 편익 맞서 재심의 요청나설 듯...구청은 오늘 중재

이 허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입주민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출입금지에 따른 긍정적 영향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D(65)씨는 "하루에만 통학차량 24대가 수차례 오고 가면서 단지 내 도로가 붐볐다"면서 "차량을 돌리는 지점에 대형통학차량 2~3대가 몰릴 경우 입주민 차량과 부딪힐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46·여)씨는 "오래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통학버스 단지 진입에 따른 교통사고를 걱정한다"며 "미취학 아동은 등하교 때 부모가 동행하지만, 보호자 없이 걸어서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단지 내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한 등대표는 "정문으로부터 80여m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면 교통 안전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어린이가 학부모 또는 지도교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찬성 입주민들은 통학차량 공회전에 따른 매연·소음 발생, 대형 통학차량에 의한 도로시설 파손 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은 "도입 찬반투표를 할 때부터 외부차량 출입금지에는 예상할 수 있었다. 절차상 문제없이 다수 여론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면서 "전 세대 중 10분의 1이 넘는 입주민이 재심을 요청하

면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발하고 나선 입주자들도 재심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 입주자 10분의 1이 넘는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 1곳 이상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신설된 2013년 이전에 준공과 입주를 마친 아파트는 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다.

민원을 접수한 구청은 법규 위반이나 의결과정 상 흠결은 없고 당국이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린이 통학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가지런한 이랑따라 감자피종 한창 정충군 인양면 들녘에서 주소득 작물인 봄감자 파종이 한창이다. 추운 날씨를 견디며 이랑마다 감자종자를 심는 농부는 5월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

원생 도주 쉬쉬한 광주소년원 '관리소홀·농장대응 도마 위'

광주소년원이 원생의 도주 사실을 쉬쉬하며 1시간 넘게 경찰에 알리지 않아 관리 소홀에 농장 대응까지 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고통정보산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A(18)양이 지난 18일 오후 4시8분께 치료 차 방문한 복구 운임동 한 병원에서 달아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고통정보산업학교 소속 보호직 공무원 3명이 A양을 쫓았지만 잡지 못한 것으로 전

해졌다. 광주소년원은 A양의 도주 사실을 감추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1시간26분만에 연락을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섰을 때는 A양의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소년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하려다 발빠른 대처를 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원 측은 인입한 대응으로 도

주한 지 하루가 지난 19일 오후 4시 15분께 A양을 붙잡았다. A양은 경찰에 "간혀 생활하는 게 답답해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A양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통정보산업학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멕시코 송유관화재 사망자 71명으로 늘어나

멕시코의 이달고 주 플라야델리안에서 일어난 대형송유관 폭발화재의 사망자가 71명으로 늘었다고 이달고 주의 오마르 파야드 주지사가 19일 (현지시간) 오후 5시에 발표했다.

이 날 화재는 멕시코의 새 정부가 전국적으로 민연해있는 송유관 도유의 절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류 수송방법을 바꾸는 등 대책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대표인 에르네스토 시에라는 19일 66명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5명의 백골만 남은 불탄 시신이 더 발견되면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유골은 송유관의 휘발유 유출지점에 고여있던 가솔린 웅덩이 부근에서 반쯤 땅에 묻혀있어서 늦게 발견되었다.

파야드 주지사는 멕시코의 포로(Fro)TV를 통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사실을 발표했다.

이달고 주의 한 주민은 이 날 참사가 일어난 것은 송유관 화재 발생 직후 현장을 정리하던 군인들의 대피 명령을 민간인들이 듣지 않고 가솔린 누출장소로 몰려든 것이 원인이며 이 화재가 폭발로 이어져 많은 희생자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송유관 절도가 일어난 곳에 19일 다시 와보니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대피 명령을 듣지 않고 기름을 가지러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들이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유해에 피부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고 수십구의 시체는 다 타서 백골만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을 피해서 현장에 접근했지만, 웬지 가까이 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아들에게 "그만 가자"고 말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멕시코 국방부는 28명의 군인들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주민들이 대피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강압적인 해산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美 중서부 폭설로 제설트럭 전복 운전자 사망

미국 중서부를 강타하고 19일 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동한 눈폭풍과 혹한으로 곳곳에서 빙판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오후 캔사스주 교통국 소속의 제설차 스티븐 윈들러(28)가 69번 고속도로에서 제설 트럭이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목숨을 잃었다. 워싱턴 이틀 산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캔사스 시티 도심지 외곽의 존슨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18일 밤에 이곳을 통과한 눈폭풍 때문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제설차는 오른쪽 커브길에서 갓길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벗어나 풀숲으로 진입한 뒤 굴러가면서 전복되었다. 윈들러는 운전석에서 뒹겨 나갔고 트럭이 그의 몸을 덮쳤다.

중서부 곳곳에서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고속도로와 프리웨이, 지방 도로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눈폭풍은 19일 북동쪽의 뉴잉글랜드로 옮겨갔다. 뉴잉글랜드 북부의 일부 지역에는 최고 46cm의 폭설이 예고되어 있다.

한 편 유니티드(UA)항공의 비행기 한 대가 시카고의 오헤어국제공항에서 19일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도 있었다.

피닉스에서 출발해 이 곳에 도착한 이 여객기는 눈과 얼음으로 미끄러운 활주로에서 129명을 태운 채 미끄러졌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태국서 괴한들 불교 사찰 습격 승려 2명 사살

태국 남부에서 이슬람 반군으로 보이는 무장괴한들이 불교 사찰을 습격해 승려 2명이 사살하고 다른 2명을 다치게 했다고 현지 경찰이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라티왓 주에 있는 불교 사찰에 전날 밤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이 같은 만행을 자행했다.

불교국인 태국에서 나라티왓 주는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으로 2004년 이래 이슬람 반군의 분리 독립 투쟁으로 약 7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찰에 도착한 괴한들이 자동차소총을 난사한 다음 질 안으로 들어가 승려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사망한 승려 중에는 사찰 주지도 포함됐다고 한다.

또한 이날 나라티왓 주 일대에서는 급조폭발물이 도로 변에서 터져 치안군 5명이 부상했고 민병대와 무장괴한 5명이 총격전으로 벌이면서 1명이 숨지기도 했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려이는데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만 1세에는 건강기초검사를 실시합니다.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